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 선임 “경험한 모든 것 쏟겠다”

임시주주총회서 선임안건 의결
만 43세 리그 최연소 대표 타이틀
내달 클럽하우스 방문, 업무 돌입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강원FC가 이영표(홍천 출신) 대한축구협회 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강원FC는 22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1차 이사회를 열고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사랑나눔재단 이사의 강원FC 대표이사 선임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 43세의 이영표 대표이사는 K리그 최연소 대표이사 타이틀을 얻게 됐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가운데 흥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에 이어 두 번째로 축구 행정가로 변신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제8차 임시주주총회에서 강원FC는 이영표 선임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했다. 강원FC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영표 선임이사 선임의 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사회 시작 30분전, 강원체육회관에 도착한 이영표 대표는 3층 도체육회장실에서 강원FC 최대주주인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과 강원FC 이사진들을 만나 앞으로 계획과 축구 철학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원FC 한 이사는 “유소년 선수 육성방안과 강원FC를 이끌어 갈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앞으로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축구계는 이 대표가 강원FC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김병수 감독과 같은 동향인 이 대표가 강원FC의 수장을 맡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일단 이 대표는 박종완 대표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강원FC에 대한 업무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영표 대표는 홍천 정춘초 2학년까지 다니다 안양초로 전학을 갔다. 안양초-



이영표(사진 가운데) 강원FC 선임 대표와 박종완 강원FC 대표, 이사진이 22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1차 이사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중-안양공고-건국대를 거쳐 2000년 K리그 안양 LG에서 프로무대를 시작한 이 대표는 PSV에인트호번(네덜란드)과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 밴쿠버 화이트캡스 FC(캐나다) 등을 거쳤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

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까지 대표팀 부동의 왼쪽 풀백으로 활약했다.

이영표 대표는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강원도민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강원FC 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어떤 팀과 경기든 하든

지 팬들이 경기장을 올 때 승점 3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표 대표이사는 내달 4일 강원FC 클럽하우스인 강릉 오렌지하우스를 방문해 김병수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선수단을 만나 상견례와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한귀섭